

지역 소식 통

고창군, 고위직 등 대상
적극행정 리더십 교육

고창군이 지난 22일 고위직 및 중간관리자(팀장급)를 대상으로 '2025년 적극행정 리더십 교육'을 열고 소극행정 근절과 창의적 규제혁신 추진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교육에선 소극행정의 폐해와 근절 방안,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토론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간부공무원들은 "더 이상 기존의 규정과 관례에 갇혀 군민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소극 행정을 넘어선 무책임한 행정이다"며 "리더들은 창의적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혁신하는 것만이 군민의 시간을 앞당기고 행정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행정력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보건소,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정읍시보건소가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최근 정읍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처럼 진행됐다.

보건소는 평소에도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자체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초기 대응 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번 합동 훈련은 이러한 대응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보건소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은 화재 발생 경보가 울리자마자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들은 △초기 소화 △피난 유도 △구조 구급 등 골든타임 내에 이뤄져야 할 대처 능력을 기웠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소나무재선충병 막는다

고부면 두승산 일대 80ha 수종 갱신... 잠재적 위험 우려목까지 없애 효과 극대화 방침

정읍시가 기후변화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고부면 두승산과 서당마을 일대 80ha의 소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대규모 수종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해당 지역의 감염목과 고사목 1619본을 제거하고 38ha 면적에 합제나무주사를 놓는 등 방제에 힘써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기존의 부분적인 방제 방식으로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나무류인 소나무와 해송을 모두 제거하는 수종 전환 방식을 도입해 감염목은 물론 잠재적 위험이 있는 우려목까지 근본적으로 없애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벌채가 끝난 지역에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강하면서도 정읍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을 새로 심을 예정이다. 이후에도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생태적 건강성을 두루 갖춘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기준 정읍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1만 7650ha에 달하는 만큼 병해충이 외곽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단자에 예방나무주사를 놓고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하는 등 저지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종 전환 사업은 정읍의 미래 산림을 건강하게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대규모 벌채 작업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수, 국가예산 확보 국회 · 정책현장 총력 행보

국가예산 반영 국회 예산 창구 전면 가동... 군 5대 핵심사업 집중 건의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의 성과를 부안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24일 국회를 찾아 핵심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국회에서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도부 인사들을 직접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선 전략적 행보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한정에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진서(왕포·작당) 낚시복합타운 조성 사업(300억원)의 국회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소득 저하로 침체된 어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어업채널·낚시·해양테저를 연계한 해양 여가 복합산업 조성이 시급

하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수산물망 거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격포 여객선터미널 대체 건립(40억원)을 포함한 해수 관련 총 3개 사업을 건의했다.

권익현 군수는 "격포항이 국내 대표 관광·여항 거점임에도 현 여객선터미널이 노후·협소해 이용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적극 부각했다.

또 이화영 국회 부의장을 만나 해상 풍력 연계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익현 군수는 전북 서해안이 국내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RE100 전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핵심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탄소중립체감관 건립사업(192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기후위기 대응·환경교육·탄소저감 실천을 통합한 생활밀착형 환경체감 시설이 미래세대 교육과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는 부안의 미래 성장동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 심사 종료 시까지 흔들림 없는 대응을 이어가 반드시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정읍시, 지역 내 모든 농림어가 대상... 행정리 단위 통계 생산

정읍시가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설계를 위해 오는 12월 22일까지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5년마다 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관내 1만 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후변화와 스마트농업 등 최신 농업 트렌드를 반영해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예정이다.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다. 조사 기준 시점 현재 정읍시 관내의 모든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는 물론 행정리까지 포괄해 조사한다. 이를 통해 농림어업의 구조 변화와 산업 경쟁력, 농산어촌의 삶의 질 등을 측정하고,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 핵심 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이번 조사의 정확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총 124명의 조사요원을 선발했다. 이들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담당 공무원과 함께 체계적인 직무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조사 대상 추정 가구는 약 1만 6144 가구에 이른다. 조사는 농가·임가, 해수면 어가, 내수면 어가, 지역 조사 등 4종의 조사표를 활용해 총 133개 항목을 살핀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조사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우선 진행되며, 방문 면접조사는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다.

특히 이번 총조사에서는 급변하는 농산어촌의 환경과 정부 부처의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확산', '인구·사회 변화' 등의 항목이 포함돼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행정리 단위로 실시하는 지역 조사에서는 의료·보건 및 복지시설, 생활·교육·교통 인프라 현황 등을 파악해 마을 단위의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37개소 모범음식점 재지정 선정

부안군이 모범음식점 재지정 심사를 실시해 일반음식점 37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으로 선정되는 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 개선이행 여부, 영업소 위생 및 환경상태, 서비스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결과 점수표 85점 이상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안군은 지정된 업소에 인센티브로 상수도 요금 감면,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와 지정 후 2년간 위생 출입·검사 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찾아가 업소의 위



생 수준을 개선하도록 돕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군민의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업소 지원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네이버페이 1만원 제공

부안군은 연말을 맞아 24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군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한 참여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권을 제공하는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하고 네이버페이 포인트 받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간 내 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뒤 답례품을 선택해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 자동으로 응모된다.

총 200명에게 선착순으로 네이버페

이 포인트 1만원권 기프티콘이 지급되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은 고향사랑기부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전국 NH농협은행 지점에서 군에 고향사랑기부 후 답례품을 선택하면 되며 당첨자는 오는 12월 12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 고창-전남 장흥 자매결연 협약

자연 · 역사 · 문화 이어온 두 지역... 상생발전 출발점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전남 장흥군이 지난 21일 오후 장흥군에서 심덕섭 고창군수, 김성 장흥군수 등 양 지역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올해 초 양 지역이 우호 교류 의사를 나누며 상호 관심이 높아진 데서 출발했다. 이후 양측은 대표 축제 상호 방문, 실무진 간 교류 논의를 지속해 오며 행정, 관광, 문화, 농업

등 여러 협력 분야에 대한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왔다.

자매결연 체결식은 참석자 소개, 홍보영상 시청, 양 군 단체장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고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공동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고창군과 장흥군은 풍부한 자



연자원과 관광자원뿐 아니라 동화농민혁명 당시 북점과 남점의 거점 역할을 담당했던 역사적 공통점도 공유.

이번 자매결연이 두 지역 간 연대와 상생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